

소련의 石油輸出동향과 전망

소련의 對西方 석유수출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소련의 대서방 石油수출은 80년대에 급격히 늘어나면서 세계석유교역에 대한 OPEC(石油輸出國機構)의 통제력을 잠식하는데 一助를 하고 있다. 소련의 정책은 이제 달러貨 결제 고객들에 대해 수출 상한선을 해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어 앞으로 2~3년 동안 여타 공급국에 대한 소련의 위협은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84년 상반기에도 소련의 對OECD原油 및 石油 제품 수출은 전체적으로 8% 증가되었다. 소련의 석유수출물량은 81년의 5천3백5백만톤에서 82년에 6천9백만톤, 83년에는 7천8백만톤으로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연간 8천8백만톤에 달하는 對동구권 수출까지 포함하면, 소련은 사우디 다음의 석유수출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세계의 석유수요가 부진하고 국내생산이 큰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이처럼 石油수출이 늘어난 것은 특기할 만한 사실로서, 여기서 외화획득재화로서의 石油에 대한 소련의 의존도를 읽을 수 있다. 소련의 石油시장 잠식이 여타 산유국의 희생하에서 이루어진 것이긴 하지만, 소련은 아직도 총OECD 수입량의 6%를 조금 넘는 양을 공급하는 한계공급국일 뿐이다. 그러나 바로 이 한계물량에서 가격이 결정되고 있어 여타 거래자들은 소련의 등장으로 중대한 위협을 받고 있다.

IEA(國際에너지機構) 통계에 따르면, 84년도 상반기중 소련의 對西方 석유수출은 83년 같은 기간의 3천4백60백만톤에서 3천7백40백만톤으로 증

가되었다. 石油제품수출은 1천4백만톤으로 10% 감소되었으나 原油수출이 2천3백만톤 이상으로 23%나 증가한 것이다. 소련의 주요수출제품은 輕油로서 84년 상반기중 이 유종의 수출물량은 59만톤이나 줄어들었다. 달러貨 결제圈으로 향하는 소련산 石油은 대부분 발틱海 및 흑해 항구에서 선적되어 西유럽으로 공급된다. 소련과 특별한 무역 관계에 있는 핀랜드를 제외하면 네덜란드, 이탈리아, 西獨, 프랑스가 주요 수출대상국으로서 전체 수출의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이탈리아는 84년 상반기중 소련으로부터의 原油수입이 전년동기에 비해 1백90백만톤이나 늘어나 절대량으로 가장 큰 폭의 증가를 기록하였으며, 노르웨이는 총수입에서의 소련산 石油비중이 83년도의 8% 이하 수준에서 21%로 크게 늘어났다. 이밖에 소련산 石油에 대한 수입비중이 높은 나라는 61%의 아이슬랜드, 그리고 약 15% 정도의 오스트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스위스 등이 있다.

소련이 상당히 어려운 조건에서 對西方 수출증진을 추진하는 것은 동구권 내에서 광범위하게 실시되고 있는 적극적인 석유소비절약 및 가스代替의 대응책으로서 지속적인 시장지향적 교역정책을 반영하고 있다. 소련의 原油와 제품은 모두 장기, 신용구매자에 대한 특혜하에 계약판매되고 있으며, 이중 상당량이 곧장 現物市場으로 빠져 나온다. 제품은 전량 현물시장가격에서 거래되는 반면, 원유 가격은 告示制이나 율통성이 있다. 소련측은 과잉 공급에 대처하거나, 새로운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이같은 율통성을 노련하게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 海外石油市場 □

소련은 가능한 한 높은 油價를 유지하는 데에 기
득의 이권을 가지고 있다. 전통적으로 동절기중 동
구권내의 수요증가에 따른 것이나, 간혹 나타나는
소련의 공급중단도 일부는 이것으로 설명된다. 얼
마 기간동안 油價가 하락할 경우 경쟁국에 대한 실
질적인 위협으로서, 소련이 줄어든 收益을 보전하
기 위해 시장에 더 많은 물량을 내놓아야 할 상황
에 처할 수도 있다.

소련 외화수입의 60% 이상이 對西方 石油수출
에 의해 얻어지며, 84년의 石油판매 수익은 1백80
억 달러를 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 거둬들인 곡물작
황의 부진으로 외화수요는 계속 늘어가고 있다. 올
해도 서방으로 부터의 곡물수입은 4 천 9 백만톤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전망은 밝지만, 기
술적으로 어려운 동부시베리아 및 해상의 신유전지
역개발은 서구로부터 설비, 장치의 원조와 공급을

소련의 對OECD 石油수출 현황

(單位: 천톤)

	原 油 ¹⁾		石 油 製 品		計		84 / 83 증감률 (%)	소련 産 石油수입 비중 (%)
	83상반기	84상반기	83상반기	84상반기	83상반기	84상반기		
오스트리아	706	612	7	13	713	625	87.7	14.6
벨기에	1,415	2,166	1,099	607	2,514	2,773	110.3	15.5
덴마크	417	390	25	38	442	428	96.8	7.4
핀란드	3,653	3,597	887	1,251	4,540	4,848	106.8	90.0
프랑스	2,310	2,889	1,183	1,173	3,493	4,062	116.3	8.3
西獨	1,864	2,893	2,887	2,648	4,751	5,541	116.6	9.9
그리스	669	740	318	149	987	889	90.1	12.4
아이슬란드	—	—	118	135	118	135	114.4	60.8
아일랜드	—	—	64	93	64	93	145.3	4.1
이탈리아	3,757	5,510	229	379	3,986	5,889	147.7	12.3
日本	25	18	240	315	265	333	125.7	0.3
네덜란드	1,441	1,945	5,721	4,257	7,162	6,202	86.6	15.7
노르웨이	82	379	61	103	143	482	337.1	21.1
포르투갈	120	74	—	—	120	74	61.7	1.7
스페인	404	403	481	668	885	1,071	121.0	4.2
스웨덴	1,119	777	452	489	1,571	1,266	80.6	11.8
스위스	45	45	1,366	929	1,411	974	69.0	15.7
터키	—	—	44	45	44	45	102.3	0.6
英國	927	807	481	699	1,408	1,506	107.0	6.7
美國	1	—	—	121	1	121	12,100.0	0.1
計 ¹⁾	18,955	23,245	15,663	14,112	34,618	37,357	108.0	6.4
나프타	—	—	2,685	2,118	—	—	78.9	11.5 ²⁾
휘발유	—	—	765	631	—	—	82.5	3.5 ²⁾
輕油	—	—	9,154	8,564	—	—	93.6	23.2 ²⁾
연료유	—	—	2,815	2,461	—	—	87.4	5.0 ²⁾
기타제품	—	—	244	338	—	—	138.5	—

註: 1) NGL 및 정제원료 포함.

2) 각제품별 OECD 총수입에서의 소련제품 수입비중

3) 명시되지 않은 OECD 국가들(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룩셈부르크)은 소련으로부터 석유수입이 없었던 것으로 추정.

〈資料〉 OECD/IEA. Quarterly Statistics 1984/No. 3 (Petroleum Economist).

필요로 하기 때문에 달러획득源에 대한 압력은 더욱 가중될 것이다. 소련은 80년대 후반기에 西유럽에서의 가스교역 확대를 바라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石油수출 감소를 감내할 여유가 없었다. 西유럽은 83년도에 2백80억입방미터의 소련산 天然가스를 도입하였으며, 84년초에 西部시베리아에서 시발되는 대규격 수출 파이프라인이 가동되면서 동서간 공급시스템의 능력은 연간 3백20억 입방미터가 더 늘어났다. 지금까지는 이 파이프라인의 수송능력중 2백억입방미터 정도에 상당하는 고객만이 확보된 상태에 있다.

지난 80년 이래 소련의 石油생산증가세는 해마다 둔화되어 왔다. 84년에는 83년에 비해 3백만톤이 적은 6억1천3백만톤을 생산함으로써, 2차대전 이래 최초의 감소를 기록하였다. 소련은 82년초에 東歐圈으로의 공급물량을 10% 감축시키고, 동구권 전역에 걸쳐 가스대체 및 石油소비절약을 강력히 추진하는 등의 방법으로 생산부진에 대처하면서 처서방 石油수출을 늘려 온 것이다. 한편 바터 거래를 통하여 中東에서 구입한 물량을 달러貨 결

제 고객들에게 재수출하기도 하였다. 84년 상반기중 이라크, 리비아로부터의 石油수입은 약 20만 b/d에 이른 것으로 추정되며, 이뿐 아니라 이란으로부터도 6월의 외교관계 재개 이후 石油를 들여오고 있다. 中東석유의 상당부분이 동 유럽에서 정제되어 달러貨결제 국가에 판매된다.

85년도의 산유량이 6억2천8백만톤으로 다시 증가될 것이라는 소련의 발표에 대해 많은 서방 관측통들은 회의를 갖고 있으며, 일부는 세계 최대 산유국인 소련의 산유량이 도리어 하락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산유량이 감소될지라도 이 때문에 소련이 세계석유시장에서 밀려날 것 같지는 않다. 東유럽은 소련이 이미 보도를 통하여 현 수준의 석유인도물량이 장기간 보장될 수 없음을 암시하고 있어 石油의존도 감소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며, 가스代替 계획은 공급망의 확충과 서부시베리아, 투르크메니아 및 소련 서부의 신규발전 매장분의 개발에 힘입어 갈수록 그 성과가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

(한국동력자원연구소, 에너지동향)

□ 産油国動向 □

油價引下에 따른 가스수출가격변동

최근의 OPEC유가조정은 가스가격을 석유가격에 연계시킨 일부 회원국의 가스 수익감소로 연결된다. 그러나 한편으로 가스의 수익성 감소는 일시적으로 새로운 경쟁을 억제함으로써 인도네시아, 알제리, 아부다비 등 기존 가스생산국의 수출시장방어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인도네시아産 LNG는 모두 일부 구매자들과 계약되어 있는데, 日本측은 同 LNG가격이 수마트라 경질 Minas 油를 기준으로 하여 이와 연계된 18개 유종의 원유가중 평균가격에서 유도되는 복잡한 산정공식에 따라 백만Btu 당 10센트 정도 인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배럴당 1달러의 Minas 油 가격 인하는 日本도착기준 LNG 인도가격을 \$ 4.88/백만Btu로 낮추게 되는데, 이 경우 日本은 금년도에 약 250백만달러를 절감할 수 있다.

Badak과 Arun의 생산시설 확장으로 1984년도 가스 수출수익이 40% 정도 증가한 30억달러로 늘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의 실질 수익은 유가하락으로 큰 타격을 입지는 않을 것이다. 캐나다 서부 LNG계획은 잠재적 가능 투자선이었던 Osaka Gas社가 철수함으로써 그 실행 가

능성이 위태롭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 LNG의 對日本 수출량은 1984회계연도의 10백만톤을 초과하게 될 것 같다.

OPEC의 가격체제조정에 대한 알제리의 승인거부는 유가와 연계된 가스가격을 가격조정협정에 정해진 바대로 4월 1일부터 시행할 것인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OPEC의 가격변화가 만장일치의 합의를 보지 못함으로써 공식적인 것이 아니라는 알제리 石油相의 주장이 오늘날의 침체된 시장여건에서 가스회사들을 설득시키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가장 비싼 OPEC産 8개 유종의 Basket에 근거한 가스가격공식에 따르면 8개 유종중 어느 한 원유의 공식가가 배럴당 1달러 인화될 때마다 다음 분기의 FOB기준 가스가격은 백만Btu당 2~3센트씩 인하된다. 지금까지 알려진 가격변화는 8개 유종의 총가치를 약 2.76달러 하락시킨 것에 상당한다. 작년 10월의 나이제리아산 Brass River 유의 \$ 2/b 인하에 따라 가스가격은 이미 백만Btu 당 4센트 하락하였다.